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주임 신부	정재준	사도요한
보좌 신부	정혁	요셉 (청년부)
	이춘섭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전교수녀	박경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정은자	한나 (원장)
	김미리	에블린 (유·초등부)
	정선아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꿀벌유치원	최향숙	베로니카 수녀
요셉어린이집	김아람	소화대려사 수녀
총회장	황태영	프란치스코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알림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병자 영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약)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성 요한 보스코 대축일 미사

성 요한 보스코 대축일 미사 01월 30일 (일)

설날 합동 위령미사 안내 : 02/01(화)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01/16(일)부터 성전에 비치한 봉헌함에 넣으시거나 사무실에 접수하십시오.

설날 미사 시간 아침 06:30, 낮 12:00

- ※ 01월 31일(월)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 낮 12시 미사 후 세배와 나눔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해는 없습니다.
- 설 연휴 중 본당 사무실 근무 시간

01월 31일(월)	휴무
02월 01일(화)	06:30 ~ 13:00
02월 02일(수)	휴무

주님 봉헌 축일(02월 02일 수요일)

- 봉헌 초 축복 (6:30 미사 중)
- 1년간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 가정 기도초 : 초를 구입하여 미사 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 제대초 봉헌 : 사무실에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봉헌 축일’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 바친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이날은 하느님께서 봉헌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자신을 봉헌하자는 뜻에서 1년 동안 성당과 신자들이 사용할 초를 봉헌하고 축복합니다.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일시 : 02월 05일 / 오전 0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 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교육 / 강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시 : 02월 07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2022년 첫영성체 교리 안내

- 대상 :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3~5학년 어린이(2022학년)
- 일정 : 03/05~06/18, 첫영성체 : 06/18(토)
- 부모님 첫 모임 : 02/26(토) 17:00, 소성전
- 교리 : 소성전 교육관 (토, 14:00~15:30)
- 신청접수/접수처 : 02/05~02/19까지, 사무실(평일 접수)
- 문의 : 김국화 교사 010-5336-2802(문자로 문의)

전례 봉사자 모집

- 거룩한 미사에 봉사하실 신자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 해설 팀장 : 신영옥 헬레나 (010-6285-7480)
 - 독서 팀장 : 백희자 스틸라 (010-5314-4939)
 - 성인복사 팀장 : 하재민 베네딕토 (010-8719-7594)

시노드 관련 공지

- 02월 06일(일) 본당 시노드 개막 미사 (교중미사 중)
- 새롭게 태동하는 5지역의 활성화와 시노드 모임을 위해 5지역 형제, 자매들의 많은 참여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임시 5지역 연락처 : 최석준 마르코(010-5715-0392)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

- 기간 : 2022.01.03~방역 당국의 지침변경 시까지.
- 대성전에서 거행되는 평일과 주일 미사 참석은 백신 접종 완료 후 180일 이내에 해당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 미사 참석자는 백신 3차 접종 확인 도장을 받은 본당 명찰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 접종 미완료 신자 분들은 주일 교중미사에만 강당에서 참석 가능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02/0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소	12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01월 19일 ~ 01월 25일)

• 교 무 금		6,532,000원	
• 주일헌금		3,699,000원	
• 해외 원조 주일 2차 헌금		1,579,600원	
이재영 20만원	김기옥 5만원	안옥순 3만원	
• 감사헌금	엄영수 5만원	염금선 20만원	차○○ 10만원
	정단순 5만원	정혜선 10만원	정영자 1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01/30	이인옥	심재순	최상림	하재민	구민서
02/06	박혜선	오성환	신종구	최승일	권태희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01/30	오광운	최창열	박승환	최상남	박형순
02/06	이화봉	김인기	손상민	이계명	박승환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시노드란 무엇인가...

1. 시노드의 어원

‘시노드’란 회합, 특히 교회회의를 뜻하는 라틴어 synodus에서 유래한 영어 synod를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우리말로 ‘대의원 회의’로 번역된다. 일부에서 ‘시노드’를 ‘시노두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식 표기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라틴어 synodus는 원래 ‘함께’라는 뜻의 희랍어 συν(쑤)이란 단어와 ‘길, 통로, 방법, 여정’을 뜻하는 희랍어 ὁδος(호도스)란 단어의 합성어다.

따라서 ‘함께 걸어감’을 뜻하는 시노드는 어원 그대로 풀이하면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목표를 향해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교회 일과 관련됐기 때문에 ‘교회 회의’라고 불렀고, 또 회의를 할 때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없어 각 지역에서 대표자(대의원)들을 보냈기 때문에 현재 교회에서는 우리말로 ‘대의원 회의’라고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2. 시노드의 종류

가톨릭교회에서 시노드는 크게 교구 시노드(교구 대의원 회의)와 주교 시노드(주교 대의원 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교구 시노드

가톨릭에서 교회의 기본 단위는 교구다. 흔히 ‘개별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교구를 가리킨다. 교구 시노드는 교구의 최고 통치권자인 교구장 주교가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교구 내의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등 교구 구성원들의 대표자(교구 대의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회의를 말한다(교회법전 제460조 참조).

가톨릭교회에서 교구 시노드라는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초기 이후부터지만 그 기원은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교회 조직이 확장되면서 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교리를 비롯해 교회 법령들을 올바로 전달하고 친교를 유지하는 등의 사목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에서 교구장 주교에 의해 교구 시노드가 소집되곤 했다. 중세 초기에는 교구 내의 성직자와 수도자뿐 아니라 평신도 대표들까지도 참여했으나 교구 시노드가 교회법적인 기구로 정착되면서 평신도들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평신도가 교구 시노드에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관을 새롭게 제시한 이후부터였다.

1917년에 발표된 옛 교회법에서는 교구 시노드가 10년마다 개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1983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발효된 새 교회법에서는 교구 시노드 개최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교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제461조 제1항 참조).

(2) 주교 시노드

가톨릭교회는 교구를 기본 단위로 하지만, 각 교구가 모여 하나의 가톨릭(보편)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 ‘보편 교회’의 최고 통치권자가 바로 교황이다. 주교 시노드는 보편 교회(세계 교회) 전체의 선의를 위해, 예컨대 교황과 주교단의 일치를 드러내고 신앙과 도덕을 옹호 발전시키며, 세상에서의 교회 활동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교황이 전 세계의 주교 대표자들(주교 대의원)을 소집해서 함께하는 회의다(교회법전 제342조 참조).

주교 시노드는 교구 시노드와 달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생겨난 제도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해인 1965년에 주교 시노드를 상설 기구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교황청에는 주교 시노드를 관장하는 시노드 사무국이 있다.

주교 시노드는 보편 교회에 직접 관련되는 일반 주교 시노드와 특정 지역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특별(대륙 또는 지역) 주교 시노드로 구별된다. 일반 주교 시노드는 통상 3년마다 소집되는 정기 회의와 비정례적으로 소집되는 임시 회의로 나눌 수 있다.